

# 유럽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동향

## 1. 개요

유럽의 정보통신기술시장이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통합압력이 오랜만에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이 일고 있다. 현재 정보기술(IT) 분야는 혼합된 단기전망을 보여준다. 공급업자들은 불경기로 인해 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다. 이것은 점차 IT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하는 것으로 시급한 재편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새로운 Round를 부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긴축적인 소비 지출 통제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킨 것은 아니다.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 주요 원동력이 되어 좀더 비즈니스 지향적인 IT 컨설팅 서비스, 수행 서비스(Implementation Services) 및 응용 소프트웨어 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급진적이고 장기적인 큰 변화가 현재 시장의 기복을 좌우하고 있다.

전기통신, 컴퓨터 정보가 놀라운 속도로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아래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 하다.

- 비즈니스 기회가 광대하다.
  - 이전에 서로 관련이 없던 라이벌 업체와 부분(Sector)들을 포함한다.
  - 인터랙티브멀티미디어를 빠른 속도로 상업적 현실로 실현시킨다.
- 이미 사용자들은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의

구매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최근의 기술개발이 (예를 들면, 개인정보단말기(PDA), 이동체통신, LAN, 대화형 CD) IT, 오락과 통신업계간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촉진시킨다.

## 유럽의 IT 및 ICT 시장 규모

(단위 : 10억 ECU, %)

구 분	1993	비 중
ICT 시장 합계	262	100
IT 시장 소계	121	46
컴퓨터 HW	43	16
사 무 기 기	9	3
SW	20	8
서 비 스	36	14
H/W 유지 및 보수	13	5
전기 통신 기 기	29	11
전기통신 서비스	112	43

주) 유럽은 EU 12개국과 EFTA 5개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수요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IT 응용제품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ICT의 새로운 고객, 즉 일반사용자이다. 이들은 사업과 오락 둘 다를 위한 전통적이고 새로운 필요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용자그룹이 추가 수요를 창출하여 전체시장 성장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다.

공급측면에서는, 모두 황금열기에 싸여있다. 텔레콤 및 IT 업체로부터 케이블, 미디어, 오락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익과 경영성과 노

력을 결합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 부분의 세계주요기업들은 '90년대의 최고성장 기회를 이용해 돈을 버는 통합운동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고 믿는다. 이 결과로 최근 몇달 동안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M&A(기업통합) 물결이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함축성을 극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IT, 텔레커뮤니케이션, 가전 및 미디어업계의 통합에 의해 발생하는 신제품과 서비스가 라이프스타일과 업무방법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견한다.

현재 유럽에서 ICT 기술의 채택은 경제적 경쟁을 유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전 유럽에 걸친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도록 고안된 주요 ICT 요소기술을 포함하는 범 유럽 통신망(Trans-European Network) 프로젝트는 성장을 촉진시키하고자 하는 EU 플랜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다음 세기를 내다보면서 EU 지도자들은 강력한 ICT 네트워크가 경쟁력, 혁신 및 고용창출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한다.

## 2. 유럽의 경제동향과 정보통신기술 전개

유럽에서는 GDP 기계류에 대한 투자와 ICT 지출 등의 경향의 상관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단기적으로 분석해보면 '94년 유럽의 완만한 경기회복을 확인할 수 있다.

ICT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경제 및 ICT 시장지표 양쪽 다 점차 명목성장과 동일한 패턴으로 유사해지고 있다. (가격인하 압박으로 인해 경제는 약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경향).

경기호전 자체가 활발한 ICT 시장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ICT 시장회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언제 경제활동이 회복될 것인가를 알 수 있으면 ICT 시장의 호전을 예견할 수 있다.

단기적인 ICT 시장 경향을 논의하기 전에

유럽 경제전망에 대한 주요 가정을 대략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특성이 경제전망을 특정 짓는다.

### 가. 경제동향

'75년 이래 최초 하락된, 유럽공동체의 '93년 GDP 감소 이후 '94년의 성장전망은 보통 정도이다. 전환점은 '94년 중반이나, 최근의 전망은 추가적인 이자율 하락, 세계무역의 점진적 회복, 유럽의 경쟁력의 점진적 개선, 소비자와 업계의 확신의 회복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하다.

EU의 전문가들은 단지 완만한 성장을 할 것이라 강조한다. 중요한 요인이 모든 GDP 요소(개인 및 공공수요, 수입, 투자)의 성장을 위협한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호의적인 환율 움직임이 결여되어 있고, 소비자의 실제 구매소득의 감소와 낮은 시설 이용도를 포함, 설비에 대한 투자의 본질적인 증가를 배제하고 있다.

### 나. 투자동향

최근의 경기침체에 가장 영향을 받는 수요소는 설비에 대한 투자이다. '90년 이래 실제 성장은 3년 연속 감소하였다. 이것은 저조한 내수 및 해외수요전망, 저율의 시설 이용도, 많은 유럽국가들의 고율의 장기이자율 등에 대한 주기적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된 사업환경으로 '94년도에 설비에 대한 투자가 완만하게 실제 성장을 하게끔 재현할 것이다. 가능케 하는 요인은 이자율의 지속적 하락, 특히 비유럽국가들의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수요전망과 이익성의 추가적인 강화 등이다.

### 다. 국가간 격차

유럽에서 국가간 경제력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94년 전 유럽에 걸쳐 실제 GDP는 성장세로 진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벨기에,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성장세

가 약화될 것이다. EFTA 국가와 다른 EU 국가에서의 실제 GDP 성장은 1%~2%로 예상되며 단지 덴마크,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잠재 성장에 가까운 2.5% 성장이 예견된다.

라. 리스크와 불확실성

3가지 주요 불확실성이 현재의 경제 예상을 특정지운다.

독일의 경기침체가 그 중 하나인데 침체의 페이스와 기간은 아래 두요소에 따라 예상한 것 보다 더욱 악화 될 수 있다. 첫번째는, 이자율의 근본적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재정조건의 완화이다. 현재의 인플레이 압력이 이것을 저해할지 모른다. 둘째는, 세계무역의 점진적 강화가 예상보다는 빨리 발생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의 수출에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의 약한 수요를 겪는 독일의 경기침체의 정도가 인접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최근의 한 예측에 의하면 인접국가들의 실제 GDP 성장은 '93년과 '94년의 독일의 GDP 성장을 이러한 국가들간의 긴밀한 상호 의존성을 감안하면, 경제활동의 침체는 자체 강화일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92년 가을 외환 파동시 통화를 평가절하한 국가들의 인플레이 및 성장전망으로서 최근에 획득한 경쟁력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사라질 지 모른다. 현재의 스태그네이션 수준이 인플레이 압력의 재현을 막지 못한다면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결과 전세계와 이 지역의 경기침체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의 IT 및 커뮤니케이션 시장을 약화시켰다. 유럽의 경기회복이 늦어짐으로 해서 '93년 IT 시장은 약 2% 성장을 했다. '94년은 경기회복이 예상되어 3.6% 성장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93년 6.2% 성장하였고 '94년에는 6.3% 성장이 예견된다.

두 자리 이상의 성장은 IT 시장이 최근에 형

성된 국가에서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보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시장 현황

지난 해의 경향을 주목하면서 유럽 IT와 ICT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93년 유럽 ICT 시장은 262억 ECU 규모였다. 이 중에서 121억 ECU는 다음의 핵심 정보기술 범주의 시장이었다. 즉, 사무장비, 전자데이터처리장비, 소프트웨어, 전문 서비스, 프로세싱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하드웨어 유지 및 보수 등이었고 나머지 141억 ECU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와 서비스 시장이었다.

지역별 세계 IT 시장 동향

(단위 : 10억 ECU, %)

구 분	1993	'92	'93	'94
전 세 계	350	100.0	100.0	100.0
서 유 럽	121	35.1	34.5	33.7
E U	104	30.2	29.6	28.8
EFTA	17	4.9	4.9	4.8
동 유 럽	3	0.7	0.8	1.0
미 국	137	37.9	39.1	39.4
일 본	56	17.3	16.0	15.7
N I C s	5	1.4	1.5	1.5
기타 국가	28	7.6	8.0	8.6

주) NICs는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4개국

지역별 세계 ICT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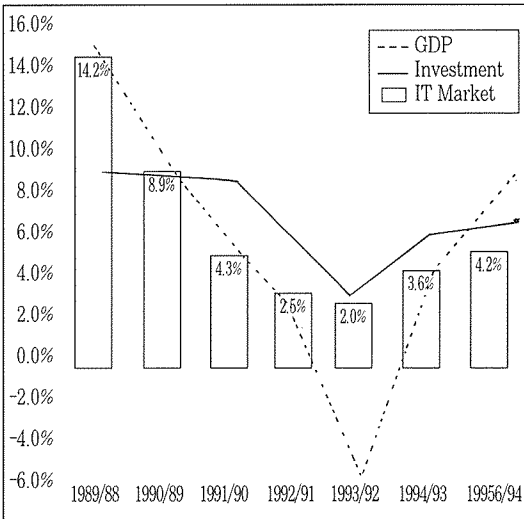
(단위 : 10억 ECU, %)

구 분	1993	'92	'93	'94
전 세 계	775	100.0	100.0	100.0
서 유 럽	262	34.2	33.8	33.3
E U	226	29.5	29.1	28.7
EFTA	36	4.7	4.7	4.6
동 유 럽	13	1.7	1.7	1.8
미 국	287	36.6	37.0	37.0
일 본	126	17.0	16.2	15.9
N I C s	25	3.2	3.3	3.3
기타 국가	62	7.4	8.0	8.6

주) NICs는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4개국

'91년 이래의 성장을 둔화시킨 경기후퇴로 전세계의 전체 ICT 시장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낮아졌다. '93년 서유럽의 ICT 시장은 전체 세계시장의 38%를, IT 부분에서는 34.5%를,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는 32.9%를 차지했다.

서유럽의 GDP, 투자, IT 시장의 연간 성장률 전망



자료 : OECD, EITO

5년 연속된 시장 침체는 '93년 불리한 통화변동으로 인해 절정에 달했다. 이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해 단일통화로 비교했을 때 시장규모를 축소시켰다. 이에 비해 미국과 4마리 호랑이(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국가의 ICT 시장은 세계시장에서의 점유를 계속 확장하였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완만한 편이지만 미국의 IT 시장회복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비된다. '92년 7.7%에 이어 '93년 미국의 IT 시장은 7% 성장하였고 전체 ICT 시장은 '93년 6.7% 성장하였다.

주요국별 GDP, 투자, IT, ICT 시장의 명목 성장률 추이

(단위 : %)

국별	1992	1993	1994	국별	1992	1993	1994
유럽				영국			
GDP	5.4	2.8	4.4	GDP	3.8	4.0	6.0
투자	1.4	-5.7	3.3	투자	1.6	0.9	6.0
IT	2.5	2.0	3.6	IT	3.6	3.0	4.4
ICT	4.9	4.2	5.1	ICT	2.8	3.0	3.9
독일				스페인			
GDP	7.5	2.4	3.8	GDP	7.4	3.4	4.4
투자	3.5	-8.4	2.1	투자	4.4	-7.1	0.5
IT	5.2	1.5	3.4	IT	-1.2	-3.0	3.9
ICT	9.2	5.0	6.0	ICT	0.5	1.6	5.2
프랑스				미국			
GDP	3.7	1.4	3.0	GDP	5.5	5.5	5.6
투자	-2.0	-6.4	0.9	투자	5.9	13.7	12.5
IT	2.5	-0.5	2.2	IT	7.7	7.0	6.9
ICT	4.4	2.9	4.5	ICT	7.0	6.7	6.5
이탈리아				일본			
GDP	5.7	3.7	5.8	GDP	3.2	0.5	1.2
투자	1.2	-9.6	6.7	투자	-2.2	-7.6	-3.1
IT	2.3	-0.3	1.9	IT	-7.1	-3.8	4.2
ICT	5.3	3.8	4.8	ICT	-0.8	0.8	4.5

자료 : OECD, EITO

4마리 호랑이 국가의 연합 ICT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였다. '93년 이들 국가의 연합시장 성장률은 11.6%이었다. ICT의 비교적 낮은 보급률로 인해 이 지역의 시장성장 잠재력은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강하다.

세계 ICT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낮아졌다. '92년의 IT 내수시장에서의 급격한 하락세에 이어 '93년에도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가격침식으로 인해 마이너스 3.8% 성장을 기록했다.